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동계 올림픽 전종목 출전권 획득

女 대표팀 개인·단체전 모두 출전
남자 대표팀 500m서 한장 놓쳐
평창 제외 밴쿠버 이후 최고 성적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 모든 종목 출전권 획득에 성공했다.

3일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1~4차 대회에 걸쳐 있던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부 개인전 및 단체전 모든 쿼터를 따냈다.

남자 대표팀은 취약 종목인 500m에서 한 장을 놓쳤다.

이로써 한국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500m에 2명, 1000m와 1500m에 3명, 여자 500m, 1000m, 1500m에 3명이 출전한다.

남자 5000m 계주에선 종합 2위를 기록해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고, 여자 3000m 계주 역시 종합 2위로 올림픽 쿼터를 따냈다.

혼성 2000m에서도 종합 2위로 상위 12위 안에 들면서 무난하게 출전권을 확보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다.

한국은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여자 1000m 한 장, 2014 소치 올림픽 남자 500m와 1000m에서 각각 한 장씩의 출전권을 놓쳤고,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선 남녀 500m에서 한 장씩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홈 이점을 누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만 남녀 모든 종목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은 평창 대회를 제외하면 밴쿠버 올림픽 이



1일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 스포르트볼레바르에서 끝난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4차 대회에서 세리머니 펼치는 김길리(왼쪽)와 임종연.

/연합뉴스

후 역대 최고의 올림픽 예선 성적을 낸 셈이다.

당초 대표팀은 취약 종목 남녀 500m에서 모두 한 장씩의 출전권을 놓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자 대표팀 이소연(스포츠토도)이 월드컵투어 4차 대회 여자 500m에서 21위를 기록하면서 올림픽 예선 순위가 28위로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해당 종목 올림픽 예선 순위 6위

최민정(성남시청), 15위 김길리(성남시청) 등 상위 32명 안에 3명의 선수가 포함되면서 한 종목에서 국가당 최대로 얻을 수 있는 3장의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에 오른 이소연은 단체전 멤버다.

그러나 단거리 종목에 강점을 보여 올 시즌 월드컵



투어 1~4차 대회 여자 500m에 계속 출전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렸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쇼트트랙 출전권은 1~4차 월드컵투어 성적 중 선수별로 가장 좋은 3개의 성적을 더해 높은 순서대로 남녀 500m와 1000m는 총 32장, 1500m는 36장을 국가별로 배분한다.

ISU는 12일 쇼트트랙 올림픽 종목별 예선 순위를 공식 발표하면서 출전권 확보 현황을 각 국가 연맹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재명 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2일 귀국해 휴식기에 들어갔다.

선수단은 이달 둘째 주부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올림픽 대비 집중 훈련을 한다.

/연합뉴스

광주FC 진시우, 올해 K리그1 마지막 라운드 베스트11

MVP는 대전하나시티즌 서진수

광주FC의 진시우가 2025시즌 최종전에서 베스트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30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광주 수비수 진시우도 명단에 포함됐다.

진시우는 시즌 최종전으로 진행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효과적으로 상대 공세를 막으면서 무실점 승리에 역할을 했다. 광주는 이날 후반 4분 터진 헤이스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190cm의 장신 수비수 진시우는 연세대를 거쳐 지난해 전북현대를 통해 프로 유니폼을 입었고, 올 시즌 광주로 임대돼 23경기를 소화했다. 그리고 최종전 승리 주역으로 처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시즌 마지막 라운드 MVP는 대전하나시티즌의 서진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하고, 주앙 빅토르의 추가골도 도우면서 대전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대승을 거둔 대전은 K리그 1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38라운드 베스트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매치는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대구FC와 FC안양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 경기에서 안양은 전반 1분과 4분에 나온 마테우스와 이창윤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대구가 후반 13분 지오바니의 골로 추격에 나섰고,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세정야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승부를 펼쳤지만 K리그1 최하위로 강등 운명을 맞았다.

◇하나은행 K리그1 38라운드 베스트 11

▲MVP : 서진수(대전) ▲FW: 세정야(대구),



광주FC의 진시우(왼쪽)가 지난 30일 수원FC와의 최종전에서 싸박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진수(대전), 지오바니(대구) ▲MF: 김승섭(제주), 토마스(안양), 김봉수(대전), 모재현(강원) ▲DF: 안톤(대전), 진시우(광주), 김문환(대전)

▲GK: 송범근(전북) ▲베스트 팀 : 대전 ▲베스트 매치: 대구(2) vs (2)안양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 KBF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전남도 바둑팀이 2025 KBF바둑리그 정규리그 2연패에 성공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9-11라운드 경기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최종 10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특히 11라운드 경기에서 '라이벌' 부안군을 5-0으로 꺾으면서 우승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에 이은 정규리그 연패다.

기명도 단장과 신철호 감독이 이끄는 전남도 바둑팀은 남자 선수 4명(김진우·김현석·신현석·홍근영)과 여자 선수 3명(김현아·이루비·한유정)으로 구성됐다.

경기는 K바둑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우승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한 전남도는 포스트

시즌에 참가해 챔피언결정전 우승트로피에 도전한다. 10일부터 12일까지 플레이오프 대결이 펼쳐지고, 17-19일에는 챔피언결정전이 3경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포스트시즌은 정규시즌 5위 팀부터 스텝레이터 방식으로 승부를 펼치게 된다.

우승팀 전남과 함께 2위 김포시(8승 3패·개인 승수 37), 3위 부안붉은노을(8승 3패·개인 승수 35), 4위 부천시(8승 3패·개인 승수 34), 5위 부산이봉장학회(7승 4패·개인 승수 30)가 포스트시즌에서 대결한다.

경기는 K바둑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원정 역대 최고 성적...전남장애인체육회 해단식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개최해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3일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박정현 상임부회장과 전남선수단, 종목단체 회장·감독·코치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을 가졌다.

전남은 30개 종목에 약 400여 명이 출전해 금메달 44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57개 등 총 155개의 메달로 총점 10만 5928점을 획득하며 지난해 대비 두 계단 오른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시상은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한 카누와 소다운, 2위의 론볼, 3위 사이클과 당구 순으로 이뤄졌다.

감사패는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온 정성만 제1대 상임부회장과 보해양조문상오 목포지점장 등 11명에게 수여됐다.

공로패는 여자 3인조 B7(선수부) 금메달과 단

식 B7(선수부) 은메달을 획득한 론볼 국가대표 윤복자와 이빈 대회에서 4개의 유도 메달에 기여한 김남완 전남장애인유도협회장 등 28명이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당구 여자 1쿠션·3쿠션 단식·팀전 BIW(선수부)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조경화, 육상 트랙 800m·1500m·5000m DB(선수부) '3관왕'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 역도 남자 -85kg급 파워리프트종합 OPEN(시각,동호인부)에서 한국 신기록(스쿼트 185.00kg)으로 은메달을 딴 유병상(순천시청) 등 총 16명이 선정됐다.

우수 지도자상은 전남장애인육상연맹 김유리 인솔코치 외 12명이 수상했고, 다년간 우승팀 표창은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전남장애인카누협회가 받았다.

한편 이번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렸고, 내년 대회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즐거웁니다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호접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